

연구자료 D391 | 2014. 12.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FTA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농업인 교육

1. 개요	1
2. 2014년 교육 추진 실적	2
3. 설문결과	10
4. 교육 내용 요약	14

제2장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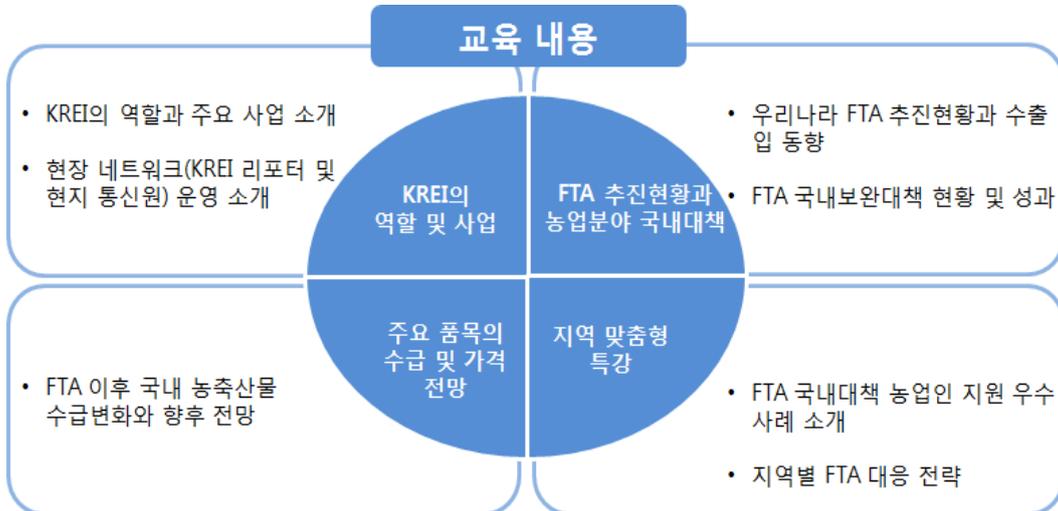
1. 개요	35
2.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 소개	37
• 팔구농산 (축사시설현대화)	37
• 청주농장 (축사시설현대화)	40
• 충청농장 (축사시설현대화)	42
• 지현목장 (축사시설현대화)	44
• 녹색한우 (브랜드경영체지원)	47
• 하이록한우 (브랜드경영체지원)	49
• 둥이농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52
• 푸른농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54
• 청소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6
• 부흥친환경쌀작목회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8

제 1 장

FTA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농업인 교육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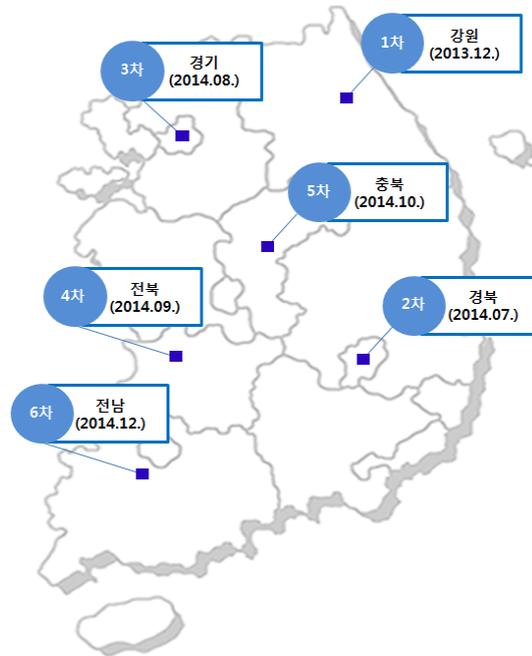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농업인의 피해를 설명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직접피해보전 등 정부가 수립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 이해 증진
 - 2015년 1월 2일 기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 체결 (11건 발효)
 -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36조 1천억 규모의 투융자 계획 수립
 - FTA 추진현황과 국내보완대책 관련 농업인 이해 증진 및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별 순회 교육
 - FTA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 및 주요 생산 품목 동향 및 전망,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우수사례 등 지역 맞춤형 특강 마련



2. 2014년 교육 추진 실적

- 2013년 12월 20일 강원도 지역 FTA 농업인 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17일 전라남도 지역까지 총 6회 농업인 교육 실시
 - KREI 현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KREI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인, 담당 공무원, 농협 및 협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 그밖에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자체 공무원, 후계농업인, 농업 CEO,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FTA 관련 교육 15회 실시
 - 교육을 통해 FTA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소개하여 농업인의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
 - 교육내용: ‘FTA 추진현황 및 농업분야 국내대책 소개’, ‘FTA 피해보전제도’, ‘대외 개방과 후계농업경영인 대응 전략’ 등



○ 1차 FTA 농업인교육(강원도)

-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10:00
- 장소: 원주 돼지문화원
- 참석인원: 86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 인사말		FTA이행지원센터 정민국 센터장
10:10 - 10:30 (20')	교육1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창의정보실 김동원 실장
10:30 - 11:10 (40')	교육2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문한필 연구위원
11:10 - 11:50 (40')	교육3	배추 수급 및 가격 전망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연구원
11:50 - 12:30 (40')	교육4	축산업의 6차 산업 사례	돼지문화원 정성훈 대표
12:30 - 13:30 (60')	○ 중식 및 기념품 수여		

- 건의사항

- 한·중 FTA로 인하여 향후 배추 대란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이 걱정됨. 가격 폭락 문제는 생산자들에게 즉각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책 필요
- FTA는 국가 간 거래이며, 양측 모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산업별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분야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오늘과 같이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2차 FTA 농업인교육(경상북도)

- 일시: 2014년 7월 10일(목), 10:00
- 장소: 경상북도 농업인 회관
- 참석인원: 80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 인사말		FTA이행지원센터 정민국 센터장
10:10 - 10:30 (20')	교육1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창의정보실 김동원 실장
10:30 - 11:10 (40')	교육2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문한필 연구위원

시 간	내 용		비 고
11:10 - 11:50 (20')	교육3	한우 수급 및 가격 전망	농업관측센터 이형우 연구원
11:50 - 12:20 (20')	교육4	사과 수급 및 가격 전망	농업관측센터 신유선 연구원
11:50 - 12:20 (30')	교육5	경북지역 FTA 기금사업 추진성과	대구경북농금농협 신태주 상무
12:20 - 13:20 (60')	○ 중식 및 기념품 수여		

- 건의사항

- 쌀 관세화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농민들은 그 내용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없음. 쌀 관세화로 인한 정확한 피해와 대응책에 대한 홍보 필요
-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로 투입된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격 조절 기능이 필요함.



○ 3차 FTA 농업인교육(경기도)

- 일시: 2014년 8월 28일(목), 13:3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인원: 43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3:40 (10')	○ 인사말		FTA이행지원센터 정민국 센터장
13:40 - 14:10 (30')	교육1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연구위원
14:10 - 14:40 (30')	교육2	쌀관세화와 향후 과제	농업관측센터 박동규 센터장
14:40 - 15:00 (20')	교육3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창의정보실 김동원 실장
15:40 -	○ 설문조사 및 기념품 증정, 리포터 간담회		

- 건의사항

- 제조업 등의 산업분야에는 한·중 FTA가 득이 될지 모르나 농업분야에서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중 FTA 및 쌀 관세화 등에 따른 직접적 보상과 지원 필요
- HACCP,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 인증제도별 상이하거나 혹은 중복되는 기준들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각 인증제도의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하고 고품질은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 같으므로 보다 간소화하여 농민들도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개선해야 함.



○ 4차 FTA 농업인교육(전라북도)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1:00
- 장소: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 참석인원: 75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인사말		FTA이행지원센터 정민국 센터장
11:10 - 11:30 (20')	교육1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창의정보실 김동원 실장
11:30 - 12:00 (30')	교육2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연구위원
12:10 - 12:40 (30')	교육3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농업관측센터 한봉희 연구원
12:40 - 14:00 (80')	○ 설문조사 및 기념품 증정, 중식		

- 건의사항

- 통신원 간의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로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시·군에 배정된 리포터를 중심으로 통신원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및 건의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고 정부에 건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쌀을 관세화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협상 등으로 관세가 인하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5차 FTA 농업인교육(충청북도)

-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1:00
- 장소: 충북대학교 농대 강의동
- 참석인원: 64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인사말		FTA이행지원센터 정민국 센터장
11:10 - 11:30 (20')	교육1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창의정보실 김동원 실장
11:30 - 12:00 (30')	교육2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연구위원
12:10 - 12:40 (30')	교육3	FTA 대응 지역농업의 개편 방향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박사
12:40 - 14:00 (80')	○ 설문조사 및 기념품 증정, 중식		

- 건의사항

- FTA 국내보완대책 중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6차 FTA 농업인교육(전라남도)

-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10:30
- 장소: 전남 나주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참석인원: 52명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1:00 (30')	교육1	KREI의 역할 및 사업 - 현장 네트워크 운영 소개 -	FTA이행지원센터 남경수 연구원
11:00 - 11:50 (50')	교육2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대책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연구위원
11:50 - 13:00 (70')	○ 설문조사 및 기념품 증정, 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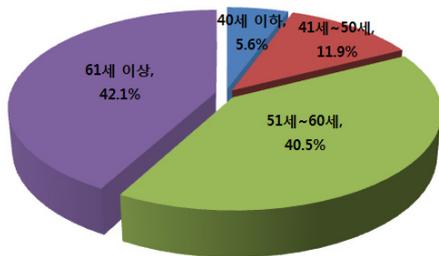
- 건의사항
 - 고령 농업인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령농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농을 대상으로 국내대책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교육의 장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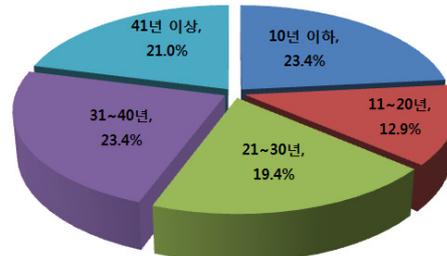
3. 설문결과

- 지역별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의 이해도 및 만족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3차 교육(경기 지역)부터 설문조사 실시
 - 교육 참석자 중 설문 응답자 수는 135명
 - 응답자 연령: 61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2.1%로 가장 많았으며, 51~61세가 40.5%, 41~50세가 11.9% 순으로 조사됨.
 -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년 이하 23.4%, 21~30년 19.4%, 11~20년 12.9% 순으로 조사됨.

<응답자 연령>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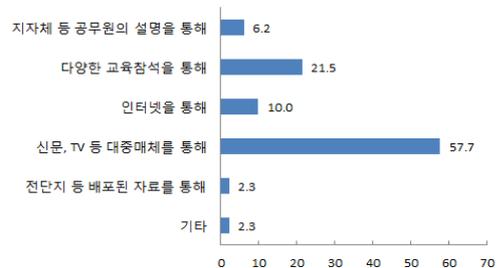
○ FTA 국내보완대책 이해도

-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8.1%에 달함.
- 이 가운데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6.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1%, 들어만 보았다 46.1%로 나타남.
-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있는 방법으로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교육 참석을 통해서가 21.5%, 인터넷을 통해서가 10.0%,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설명을 통해서가 6.2%, 전단지 등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가 2.3%로 나타남.
- 국내보완대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교육, 자료배포, 공무원 설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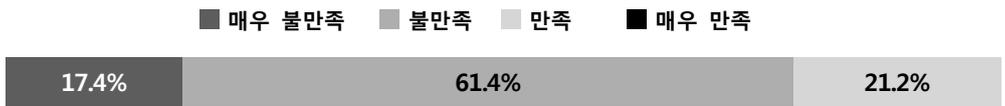


<정보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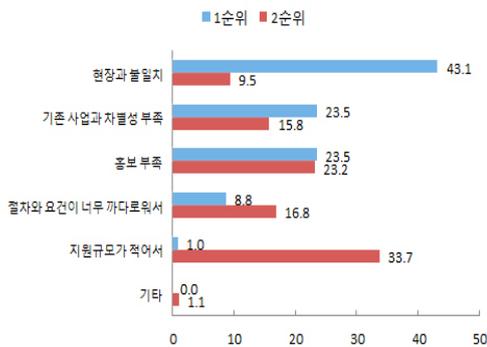
○ FTA 국내보완대책 만족도

-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는 21.2%, 불만족은 61.4%, 매우 불만족은 17.4%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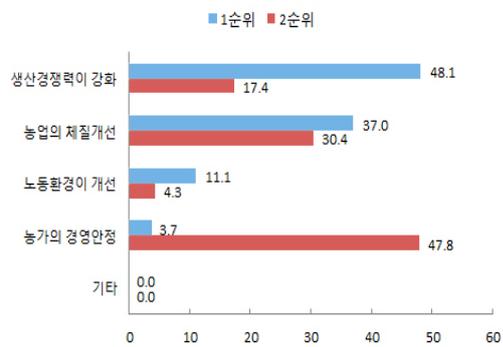


- 불만족 이유(1순위): 현장과의 불일치 43.1%, 차별성 부족 23.5%, 홍보부족 23.5%,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서 8.8%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 이유(2순위): 지원규모가 적어서 33.7%, 홍보부족 23.2%,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서 16.8%, 차별성 부족 15.8%, 현장과의 불일치 9.5%
- 만족 이유(1순위): 생산경쟁력 강화 48.1%, 농업의 체질개선 37.0%, 노동환경 개선 11.1%, 농가의 경영안정 3.7%
- 만족 이유(2순위): 농가의 경영안정 47.8%, 농업의 체질개선 30.4%, 생산경쟁력 강화 17.4%, 노동환경 개선 4.3%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

- 향후 국내보완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그 중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규모화 추진에 대한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 확대, 수급안정 대책 강화 등의 순서로 나타남.

<향후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

	1순위(%)	2순위(%)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규모화 추진	37.1	9.7
규모화, 전업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15.2	8.2
직접적 피해보전대책 확대	13.6	20.9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강화	9.8	16.4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인 역량 강화	7.6	8.2
재해보험 등 농업 위험관리 강화	6.8	8.2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 등 인프라 정비	5.3	8.2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3.8	17.9
기타	0.8	2.2

○ 세부 사업에 대한 의견

- 현재 시행 중인 세부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질문
-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발농업 직불제 등 농가가 직접 금액을 수령했거나, 수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업이 주를 이룸.
-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 과수 우량묘목 생산, 후계농업인 육성, 친환경기반구축 등으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
-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할 사업: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축사시설현대화(이차보전),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사업 등 현재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농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이 주를 이룸.

4. 교육 내용¹ 요약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네트워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설립, 35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한 농업농촌식품 관련 정책연구기관으로 현재 6부, 3센터, 3실, 1단으로 구성
 - 6부: 농촌정책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 농업발전연구부, 식품유통연구부, 글로벌협력연구부, 산림정책연구부
 - 3센터: 농업관측센터, FTA이행지원센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3실: 기회조정실, 창의정보실, 행정실
 - 1단: 청사이전추진단
- 2011~2013년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원 기관 업무위탁’, ‘농협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등이 있었음.
- 2014년에는 18개 기본연구과제와 그밖에 수시과제 및 용역과제 등을 수행하며, 정부 위탁사업인 농업관측사업, FTA 이행지원사업, 삶의 질 위원회 운영 등 수행
- 홈페이지와 주간웹진,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농정포커스 등을 통해 최신 이슈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또한 홈페이지에 리포터사랑방을 운영하여 리포터/통신원과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2015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연구원은 ‘행복한 농촌 건설 선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적 싱크탱크’라는 비전하에 지방 이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1 상세 교육 자료는 <부록> 참고

- 5대 경영목표: ‘실용적, 미래지향 농정 방향 선도’, ‘적시적, 효과적 정책현안 대응’, ‘연구원 지방 이전 재도약 기회 활용’, ‘글로벌/지역 교류협력 확대’, ‘조직역량 배가 및 품질 제고’

○ KREI 현장네트워크

- KREI 현장네트워크는 KREI 리포터 1개 시·군당 1명, 현지통신원 1개 읍·면당 1명으로 구성
- 현장 리포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 소리를 연구원에서 정리하여 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정책시행, 지원, 규제개혁 등으로 환류
- KREI 리포터 조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총괄하고 사무국(창의정보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중앙회와 각 도단위 지회가 운영되고 있음.
- 현지통신원 제도는 1978년 연구원 개원 이래 지난 35년간 운영된 제도이며, 연구사업 관련 조사와 여론 청취 채널로 연구원과 농업인, 중앙과 현장을 이어주는 매신저 역할 수행
 - 현재 현지통신원은 약 3,000명으로 개개인의 농지규모와 주 소득작목 등 26개 정보를 DB로 관리

② FTA 추진현황과 농업분야 국내 대책

○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단기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농축산물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여 농업계 우려가 높은 상황임.
 - 2014년 1월 2일 기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 체결 (11건 발효)
- FTA 협상 관련 용어 설명
 - 양허(Concession): 관세 철폐, TRQ, 부분감축 등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는 국가 간의 약속

- 양허 제외(Exclusion): 상품관세와 관련하여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개방 제외(현행 관세 유지)의 뜻으로 통용됨.
- 저율관세할당(TRQ): 관세를 감축하지 않는 대신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쿼터) 배정(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관세 부과)
- 부분감축(Partial Reduction): 현행 관세의 전부가 아닌 일부 관세만 감축
- 한·미, 한·EU 등 주요 FTA 체결에서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기한을 두고 점차 철폐, 민감품목은 계절관세, 부분감축, 일부 TRQ, 양허 제외 적용

<주요 FTA 농산물 양허>

구 분	칠레 (2004.4.)	EU (2011.7.)	미국 (2012.3.15.)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보리(맥아) 269%	DDA 이후	15년, TRQ, ASG(16년)	14년, TRQ, ASG(15년)	15년, TRQ, ASG(16년)	12년+TRQ, 15년	10년간 50% 감축	
감자(전분) 455%	DDA 이후	15년, ASG(16년)	15년	10년간 50% 감축	제외	10년간 50% 감축	
참깨 630%	DDA 이후	18년	15년, ASG(18년)	현행 유지	제외	제외	
고추, 마늘, 양파 270%, 360%, 135%	DDA 이후	현행 유지	15년, ASG(18년)	제외	제외	제외	
사과(후지), 배(동양) 45%	제외	20년, ASG(24년)	20년, ASG(23년)	제외	제외	제외	
감귤(신선/건조) 144%	DDA 이후	온주: 현행 맨더린: 15년	15년	제외	제외	제외	
오렌지(신선) 50%	DDA 이후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제외	제외	
포도(신선) 45%	계절관세, 10년	계절관세(17년), 5년	계절관세(17년), 5년	계절관세, 5년	제외	18년	
키위(신선) 45%	10년	15년	15년	계절관세 5년	10년	6년	
쇠고기(냉동/무뼈) 40%	DDA 이후	15년, ASG	15년, ASG	15년+ASG	15년+ASG	15년	
돼지고기(냉동) 25%	10년	삼겹: 10년 기타: 5년	2016.1.1.	제외	13년+ASG	제외	
닭고기(다리/냉동) 20%	DDA 이후	13년	12년	18년	제외	제외	
유 제 품	전지·탈지 분유	DDA 이후	현행 유지+TRQ	현행 유지+TRQ	제외	제외	현행 유지+TRQ
	조제·혼합 분유	16년	10년+TRQ	10년+TRQ	15년+TRQ	제외	13년+TRQ
	치즈(신선)	DDA 이후	15년+TRQ	15년+TRQ	18년+TRQ	제외	15년+TR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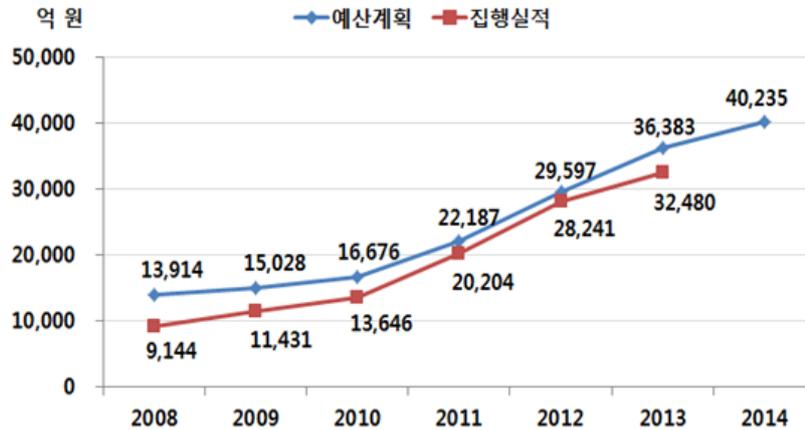
- 2014년 11월 10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
- 한·중 FTA 협상결과,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를 상회
-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신선 농축산물은 양허 제외하고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 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과 국내 수요가 적은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 FTA 이행과 파급영향

- 2013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3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은 1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
- 한·칠레 FTA 10년, 일부 칠레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과일·과채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전체 수입농산물 중 칠레산 비중은 약 2%로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한·EU FTA 3년, 미국 등 주요 경쟁 수출국의 곡물 작황 부진과 축산물(돼지고기, 유제품 등) 생산 감소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로 EU산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
- 한·미 FTA 2년, 이행 초기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으며 북미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질병(BSE) 발생에 따른 수입 제한 등으로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

○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 한·미, 한·EU FTA를 계기로 정부는 2008~2020년까지 총 28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수립하였고, 2013년까지 예산 13조 3,279억 원 가운데 12조 9,467억 원 집행



- 2014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은 크게 단기 피해보전, 품목별 경쟁력 강화, 근본적 체질개선 분야로 4조 235억 원 지원
 - 단기 피해보전(2,032억 원):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 품목별 경쟁력 강화(20,326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개량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등
 - 근본적 체질개선(18,536억 원): 생명산업기술개발, 친환경농업직불, 해외시장개척 지원, 농업재해보험,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 등
- 한·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체결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과 일부 식량작물에 대해 국내보완대책 마련
 - 한·영연방 FTA 투융자 예산: 11조 5천억 원
-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친환경축산환경 조성’, ‘재배업분야 지원’, ‘제도 개선 및 세계 지원’으로 구분
-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기본 방향은 우리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 「FTA 특별법」에 따라 2013년 수입피해 발생 품목으로 인정된 한우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 피해보전직불금(261억 원):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가격하락에 기여한 상대적 비중(수입기여도)을 산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 단가에 반영
- 폐업지원금(816억 원): 농가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 단 폐업한 농가는 향후 5년간 동일 작목을 사육/재배할 수 없음.
-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에 기여
- 맞춤형 농정(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농업재해보험 사업 등) 추진으로 영세농의 소득안정,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 전업농 육성, 경영안정 등 농업구조 개선
- 신성장동력 창출(원원종 및 원종생산, 골든씨드프로젝트, 기술 사업화 지원, 생명산업 기술 개발 등) 추진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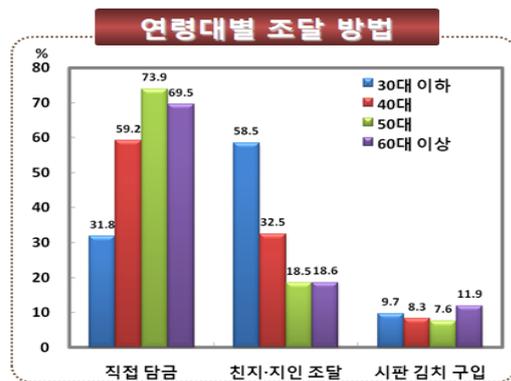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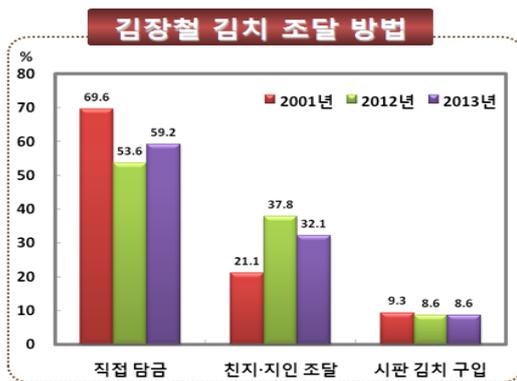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증진을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규정 완화, 보증지원 확대, 지급단가 현실화 등 필요
- 식품 및 가공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식품 안전성과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중 FTA를 농식품 수출의 기회로 활용
- 미래 농업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R&D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

③ 배추 수급동향 및 전망

○ 배추 수급 동향

- 봄/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2000~2013년 연평균 1% 감소한 반면,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1% 증가

- 배추 및 배추김치 소비량 감소로 배추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재배기술 향상과 종자개량 등으로 생산단수(10a당 생산량)은 1990년대 6,308kg에서 2000년대 6,510kg으로 상승
- 생산단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 기상여건이 불안정하여 단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남.
- 기상 이변(장마, 태풍, 한파 등)으로 국내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겨울 및 고랭지 배추 출하기에 배추 수입량 증가
- 우리나라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1인당 배추 소비량 감소
 - 배추: 2000년 66.1kg → 2013년 58.9kg
 - 김치류: 2000년 36.3kg → 2013년 31.6kg
 - 배추 김치: 2000년 25.4kg → 2013년 22.1kg
- 소비자 조사 결과 2013년 김장철에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은 전년보다 6%p 증가하고, 친지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6%p 감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낮은 연령층일수록 친지 조달 비중 상승



- 기상이변 등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실질 도매가격은 상승, 작황별로는 고랭지, 월동 배추 가격이 봄, 가을 배추보다 높은 수준

○ 고랭지배추 생산 동향

- 지난 10년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기상변화, 연작피해, 병해충 등의 원인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가운데 강원도 지역의 면적 비중은 증가
 - 평창, 정선, 태백, 삼척의 배추 재배면적 비중이 강원도 전체의 약 80% 차지

○ 배추 수급 전망

- 2014년 배추 생산량은 최근 낮은 시세로 타 품목(수박, 풋고추, 콩, 옥수수 등)으로 작목 전환의향이 커 201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배추 소비량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배추 소비량: 2013년 58.9kg → 2014년 51.0kg → 2018년 47.8kg → 2023년 44.2kg

④ 축산의 6차 산업 사례(돈으로 돈 버는 6차 산업 모델, 돼지문화원)

○ 추진 배경 및 과정

- 축산 경영인이자 한국형 육종 전문가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6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축산업 환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산업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
- 1차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GGP(원종돈) 농장: 연 2천 두 생산
 - GP(종돈장) 농장: 연 8천 두 생산
 - AI(인공수정센터): 연 12만 복 생산
 - 비육 생산 농장: 연 2만 두 생산(5개소)
- 2차 산업의 가공 및 유통기반 조성
 - 치약산 금돈(국내산): 우수 규격돈으로 가공하고 저지방 부위를 활용, 화학첨가제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을 생산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직거래 유통망 확대

- 3차 산업의 접목을 통한 축산업의 6차 산업 실현
 - 돼지 교육관, 다목적 체험관, 갤러리, 세미나실, 카페공방, 미니놀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추진 성과
 - 소비자 신뢰, 경쟁력 구축,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비선호 부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구조 다각화로 안정적 수익 보장
 -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공정 HACCP 인증 및 축산가공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실현
 - 축산업계 유일의 6차 산업화 우수모델 선정

- 성공 요인
 -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
 - 생산의 통일성과 규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지속적 관리, 개량 등으로 생산성 향상
 - 비선호부위 중심의 가공기술을 습득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돼지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육과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체험형 마케팅 진행

- 향후 계획
 - 6차 산업의 안정화
 - 제조 및 가공시설 확충(531㎡ → 1,322㎡)
 - 출하 및 가공두수 확대
 - 고용인력 및 매출액 증대
 - 관광객 유치 증대(연 2만 명 → 연 6만 명)
 - 농업인과 함께하는 창조경제 실현
 - 귀농·귀촌의 본보기

- 고용평등의 실현(원주민, 다문화, 은퇴자 등)
- 프랜차이즈 사업화
- 체험 및 휴양마을의 단지화
-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⑤ 한육우 수급 동향과 전망

○ 한육우 수급 동향

- 2002년 141만 마리였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여 2013년 292만 마리
 - 2003년 미국 BSE 이후 한우가격 강세로 사육과열, 2012년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사상 최고치인 306만 마리 기록
- 한육우 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사육농가수는 감소하고 호당 사육마릿수는 증가
- 최근 몇 년간 송아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번식우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암소 비육의향이 증가, 암소도축 증가로 이어짐.
- 상대적으로 한우 가격이 낮았던 2013년에도 1등급 이상의 경우 일정 소득이 보장되었음. 반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2014년에도 2등급과 3등급은 마이너스 소득 발생

○ 교역 동향 및 전망

- 2013년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대비 1.2% 증가한 25만 7천 톤
 - 호주산 쇠고기는 전년보다 15% 증가,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각각 11%, 13% 감소
- 쇠고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의 2014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의 소득 증가와 구이문화 확산에 따른 쇠고기 수입증가로 국내 쇠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육우 사육과 수급 전망

- 2012년 이후, 송아지 생산 감소로 2014년에도 한육우 사육마릿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번식의향이 회복되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사육마릿수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쇠고기 생산량은 24만 7천 톤, 수입량은 34만 9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1.5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⑥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사과를 중심으로)

○ 과일 산업 동향

- 2012년 농업생산액 44조 3천억 가운데 과일 생산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 과일 생산액 비중: 사과 26.2%, 감귤 21.7%, 포도 13.3%, 단감 8.9%, 복숭아 5.9%, 배 4.6%, 기타 19.5%
- 최근 과일 산업은 기상재해 등으로 단수 변동이 커져 품목 간보다는 품종 간 변화가 중요시되고 수입과일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과일 재배면적이 감소세를 보임.

○ 사과 수급 동향 및 전망

- 2011년과 2012년 병해충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 들어 회복됨.
- 사과 품종별 생산면적은 착색계후지와 홍로 면적은 증가하고 후지조숙계와 양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규격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성과기도 품종 및 기술 개발로 성과기도 4년으로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밀식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작업효율도 향상됨.
 - 사과 10a당 단수: 2,118kg('99) → 2,578kg('09)

- 2023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 1인당 소비량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기타 과일 증장기 전망

- 배 재배면적은 2018년까지 감소한 이후 조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포도의 경우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지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체 포도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단, 거봉류 및 시설포도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2023년 포도 생산량은 20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는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1인당 소비량: 3.2kg('13) → 3.8kg('23)

○ 수입 과일 동향 및 전망

-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과일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 중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체리와 망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체리 수입량: 194톤('00) → 987톤('05) → 3,800톤('10) → 9,088톤('13)
 - 망고 수입량: 421톤('00) → 762톤('05) → 1,351톤('10) → 6,154톤('13)
- 오렌지, 바나나, 포도, 망고, 체리, 열대과일 등 수입과일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⑦ 경상북도 FTA 기금사업 추진성과

○ 과수분야 FTA 기금사업 개요 및 투자실적(경상북도)

- 2004년 7월 한·칠레 FTA의 발효 등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과수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품종갱신, 용배수시설, 재해방지시설, 비가림시설 등
(기금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정비: 용수원 개발, 용배수로, 경작로 등(기금 80%, 지방비 20%)
-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과수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로 규격화, 공동출하를 통한 유통규모화 실현(기금 50%, 지방비 50%)
- 과원폐업: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
- 과원규모화: 과원집단화, 규모화를 위한 필요자금 지원

○ 추진 성과

- 키낮은사과원 조성을 통해 노동력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확량 증대

<키낮은사과원 생산비>

구분	키낮은사과원 (A)	일반 사과원 (B)	대비 (B/A, %)
수량(kg/10a)	3,614	2,409	50.0
단가(원/10a)	2,256	2,011	12.2
조수입(천원/10a)	853	4,844	68.3
경영비(천원/10a)	1,957	1,575	24.3
소득(천원/10a)	6,196	3,269	89.5

○ 향후과제

- FTA 기금사업 10년차에 접어든 시기로 사업추진 재정비 필요
- 농식품부의 FTA 기금사업 연차평과 결과, 과수 생산경쟁력 강화에는 일정수준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규모화·조직화 등 유통선진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경상북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생산과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FTA 기금사업 추진 필요

⑧ 쌀 관세화와 향후 과제

○ 지난 20년

- 관세화 유예의 긍정적 측면: 경쟁력 제고의 기회
- 관세화 유예의 부정적 측면: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한 쌀 산업의 부담가중
- 의무수입량은 5%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영무역으로 관리
- 10년간(1995~2004년)은 가공용으로만 판매하였으나,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면서 도입량의 30%를 밥쌀용으로 판매

○ 관세화 이후

- 관세화 전환이란 UR 협정문에 의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대우(관세화 의무기간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율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율관세(300~500%)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관세 산출 방식: $TE(\text{종가세}) = (\text{국내가격} - \text{국제가격}) / \text{국제가격} \times 100\%$
 - 기준 연도: 1986~1988년
 - 국내가격: 국내시장의 대표 도매가격
 - 국제가격: 수입국의 실제 평균 수입가격, 이용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인접국의 수입가격,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 추정치
 - 사용된 가격자료의 연도와 동일한 기간의 연평균 시장 환율 등 사용
- 관세 부과 후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위험요소의 이해

- FTA와 관세화는 별개의 문제로 기 체결 FTA뿐만 아니라 협상 및 검토 중인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입장 재확인
- DDA 농업협상에서도 쌀은 개도국 특별품목,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감축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진행

-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SSG가 발동하여 관세율 추가 부과 가능
 - SSG 물량기준: 당해 수입물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의 1/3 인상
 - SSG 가격기준: 수입가격이 기준발동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비율로 관세 인상

○ 외국 사례

- 일본의 경우, 1999년 조기 관세화 이후 TRQ 이의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50톤 내외)이며 오히려 수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임.
- 2003년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의 경우 작황호조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재고량을 방출하면서 일시적 쌀가격 하락을 겪었음. 하지만 2004년 쌀 가격은 관세화 이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쌀 수입량은 TRQ 물량이 대부분으로 TRQ 초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
- 필리핀의 경우 향후 5년간 관세화 유예 대신 의무수입량을 2.3배 증가하고 쿼터 내 관세를 40% → 35%로 인하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쌀 이외에 육류 관세 인하 및 검역 장벽 완화 등을 요구받음
-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상유지(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량도 증량하지 않고 현재 상태 지속)는 현실적, 법률적으로 실현 불가능함.

⑨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

- 2013년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16조 2,328억 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36.4% 차지
 - 돼지: 5,010억 원, 한육우: 3,506억 원, 닭: 2,171억 원 등
- 2013년 자가노동비, 사료비, 가축비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송아지, 병아리 등 가축비는 감소

○ 돼지 수급 동향 및 전망

- 모돈마릿수 감소로 2014년 12월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0.1~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상반기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3월 돼지 사육마릿수: 9,700~9,900천 마리 전망
- 2014년 10월 ~ 2015년 3월 비육돈 출하마릿수는 828만 8천 마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방사능 유출에 의한 수산물 대체 효과가 지속되고, HPAI로 인한 가금 육류 대체,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 증가
-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증가분이 커, 2015년 3월 돼지 도매가격은 4,800원/kg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 돼지고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생산비 하락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EU는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임.

○ 당부의 말씀

- 철저한 질병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질병(PED, FMD 등)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 필요
- 내년 하반기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후보돈 입식 필요

⑩ FTA 대응 지역농업의 개편 방향(충북 지역)

○ 충북 농업 현황

- 충북의 농업인구는 약 20만 2천 명(농가: 7만 9천 호)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약 7%를 차지
- 농업소득은 2001~2012년 연평균 6.1% 감소하였으나, 농외소득이 6.5% 증가하면서 농가 소득은 소폭 증가

- 다른 농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로 유입되는 농업인력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음.
- 충북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쌀, 과일류(사과, 포도, 복숭아 등), 축산물(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등)임.

○ 충북의 농업구조 개편 방향

-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본 현재 충북 지역 농업

<강점>

- 산림, 수자원, 국립공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 및 청정 이미지
- 충주댐(남한강), 대청댐(금강), 괴산댐 등 수자원 풍부
- 국토의 중심지이며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의 인접성

<약점>

- 지자체의 농업·농촌 관련 투자사업에 제약이 많음.
-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 구역이 많아 관련 시설 설치가 제한적임.
- 산간지가 많고 소필지로 분산되어 기계화 미흡
-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부족

<기회>

- 자연친화적 전원관광 수요 증대
- 농업의 다면적 기능 중시 추세
- 친환경 안심농산물 정책 확대
- FTA로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가능

<위협>

-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
- 농촌생활환경 낙후와 사회안전망 부족
- 이에 따라 향후 농업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FTA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 및 방역체계 수입
- 권역별로 특용작물, 과수, 채소, 생명농업, 백두대간휴양벨리 등 발전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고 또한 한방약초, 유기농, 포도, 가금, 한우, 양돈, 산림휴양 등 생산거점을 형성하여 장기적 발전 도모

<충북지역 권역별 발전 방안>



○ 결론

- 가격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은 기계화, 규모화 등을 지원하고,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품목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충북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여 충북 농축산물 가치 상승
- 장기적으로 유기농업을 충북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화되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가중되는 농업의 어려움을 창조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농업인 육성

⑪ 배 수급 동향과 전망

○ 수입과일 동향

- 과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오렌지의 경우,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미국의 오렌지 작황부진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2014년 1~11월 수입량은 평년 대비 26%, 전년 대비 36% 감소한 9만 7천 톤
- 반대로 포도의 경우 미국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1~11월 포도 수입량은 평년 대비 32%, 전년 대비 2% 증가한 5만 8천 톤
- 2013~2014년 뉴질랜드산 키위의 병해와 칠레산 키위의 냉해로 2014년 1~11월 키위 수입량은 평년 대비 65%, 전년 대비 55% 감소한 2만 톤
- 체리는 미국산 수입비중이 약 98% 수준, 미국 주산지(워싱턴)의 작황 호조로 2014년 1~11월 체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만 3천 톤
- 국내 망고 선호도 상승은 1~11월 망고 수입량은 평년 대비 436% 증가한 1만 톤
- 국내 자몽주수 수요와 명절 선물 수요 증가로 1~11월 자몽 수입량은 평년 대비 120%, 전년 대비 61% 증가한 1만 6천 톤

○ 배 수급 동향 및 전망

- 배의 경우 5대 주산지의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는 적합한 기상 및 토양여건으로 전체 면적의 15% 차지
- 2000년 이후 배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충해와 기후에 의한 단수 변동이 크게 나타남.
- 배 재배면적 감소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수 향상으로 생산량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배 생산 및 저장 그리고 2015년 설 전망

- 개화기 저온피해로 성목면적이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이 좋아 단수가 7%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따라서 금년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8만 9천 톤 전망
- 추석 이후 지속적인 가격 약세로 출하 대신 저장을 선택하면서 금년 배 저장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과 중심의 배 저장량이 증가하여 2015년 설 시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제 2 장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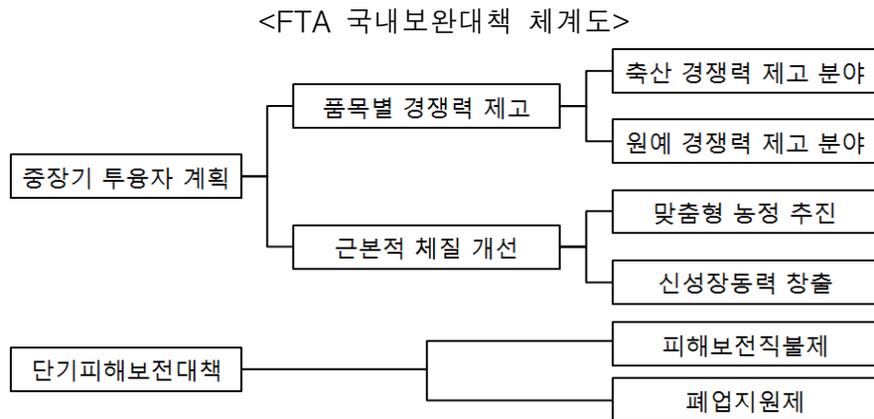
1. 개요

- FTA 추진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산업인 농업 부문에 대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인 체질개선 등을 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품목별 경쟁력 제고 분야는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
 - 축산분야: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자조금 등
 - 원예분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사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등
- 근본적 체질개선 분야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전업화를 추진하고,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기술개

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맞춤형 농정 추진: 농업경영인교육·컨설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업재해보험 등
- 신성장 동력 창출: 친환경농업지원, 종자산업육성 및 R&D, 수출시장개척 등

-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득감소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업지원제를 보완적으로 운영



- 이에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혜받은 농업인·단체 중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0개의 조사대상 중 이행실적이 우수한 10개의 농가를 선정하여 소개

- 대상: 전국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수혜받은 농업인·단체(총조사대상: 50)

- 조사기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 FTA 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 소개

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과 전업농은 현행방식,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 적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사업명		개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시설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지정)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2011.12.31. 이전에 축산업 등록된 축사

<팔구농산>

- 현재 8만 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송영배 씨는 과거 인공수정, 부화, 병 야기 감별, 산란계 농장 등 닭 관련 산업에 종사하다 1995년 육계 사육을 시작하여 약 20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기 전까지 태풍 피해 2번, 폭설 피해 2번, 화재 1번을 겪었으나, 무허가 축사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업을 이어오다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계사를 신축하여 이제 재해 걱정이 없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에 가장 만족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육계 농가(송영배 대표)
- 지원연도: 2013년
- 지원형태: 용자 80%, 자부담 20%(지원 총액: 13억 원)
- 자원내용: 축사신축 및 환기시설, 대인 소독기
- 만족도: ★★★★★
- 만족이유: 저리 용자(1%)를 지원받아 축사를 전체적으로 신축하면서 재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우며, 무창계사로 전환하여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시간 및 노동투입량 감소

○ 사업 수혜 효과

- (사육규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 이전에는 약 6만 수 규모(3개 동)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 수혜로 기존 계사는 모두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8만 수 규모(4개 동)으로 확대
- (출하체중 및 출하일령) 2014년 4월 10일 신축계사에 처음 병아리를 입식하여 2014년 11월 24일 출하까지 평균 출하체중은 1.55kg, 출하일령은 31일로 수혜 이전에 비해 체중은 감소하고 일령은 단축됨. 단, 출하일령과 체중의 경우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육일수가 증가할수록 체중은 더 크게 증가함.
- (사료요구율)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사양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사료요구율이 1.59kg으로 수혜 이전 및 평균 육계농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육성률) 사료요구율뿐만 아니라 육성률도 수혜 이전 및 평균보다 크게 높은 98.4%
- 생산성 지표를 종합한 생산지수를 비교해 볼 때 수혜 이후의 생산지수 (306.7)가 높게 나타나며, 최신설비로 인해 회전율도 기존 6회전에서 현재 최대 8~9회전까지 가능함.
- 사육규모 증대, 생산성 향상, 회전율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로 전반적인 소득 증대 효과 발생

<생산성 지표>

	평균 ¹⁾	수혜 이전 ²⁾	수혜 이후 ³⁾
출하체중(kg)	1.56	1.67	1.55
출하일령(일)	31.3	33.3	31.0
사료요구율(kg)	1.62	1.75	1.59
육성률(%)	96.3	94.6	98.4
생산지수 ⁴⁾	297.3	274.4	306.7

주 1) 계육협회 소속 계열사의 2014년 1~10월 평균

2) 수혜 이전(2013년) 4~11월 평균 생산성

3) 수혜 이후(2014년) 4~11월 평균 생산성

4) 생산지수는 육계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지수임(출하체중+육성률)/(출하일령+사료요구율).

○ 기타 건의사항

- 사업 수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과정에서 담보부담이 컸음. 시공이 완료된 축사를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융자금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축사시설의 경우 10억 원 이상 투입된 이후 매년 약 2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해야 융자금 상환이 가능한 실정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 필요



<청주농장>

-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장선순 대표는 1985년 귀농을 결심하고 당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농장부지 매입하였고, 남은 30만 원으로 모돈 2마리 구입, 양돈업을 시작함.



- 해외 각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과 시설 노후화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가 선정될 경우 폐업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돼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현재까지 축산업을 지속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양돈 농가(장성순 대표)
- 지원연도: 2014년 (2014년 3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개보수 작업 실시)
- 지원형태: 국비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지원 총액: 3억 원)
- 지원내용: 축사신축 및 급이·환기시설, 농장관리시스템 등
- 만 족 도: ★★★★★
- 만족이유: 사업 수혜로 비육사를 약 700두 규모로 신축하는 등 사육규모가 확대된 점과 축사바닥 개선 및 온도조절 장치의 도입으로 돈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 사업 수혜 효과

- (사육규모) 기존 1,100두 규모의 돈사를 개보수하는 한편, 700두 규모의 비육사를 신축하여 현재 1,800두까지 사육 가능
- (출하일령 및 출하체중) 농업관측센터 돼지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4년 11월 돼지 평균 출하일령은 182.3일, 출하체중은 113.7kg인 데 비해 청주 농장에서는 175일령에 120kg으로 출하하고 있음. 이전과 비교하면 출하 일령이 약 5일가량 앞당겨졌음.
- (사료요구율)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출하일령이 약 5일가량 당겨지면서 사료 급이량이 현격히 줄어 생산비 절감, 수익성 상승으로 이어짐.
- (질병관리) 환절기에는 20도 이상의 온도차로 호흡기가 약한 돼지들이 질병에 걸리기 쉬웠으나, 농장관리시스템 지원으로 철저한 온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격리돈사 운용은 질병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기여
- (사육환경) 이전 흙과 자갈로 돈사바닥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돈사 바닥을 평탄화하여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마련하여 상위 등급 출현율이 90% 이상 나타남.
- (노동환경) 과거에는 열악한 시설로 돼지 사양관리보다 시설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았으나, 축사시설이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사양관리가 가능해져 2명의 노동력만으로도 현재의 생산성 유지 가능

○ 기타 건의사항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과 연계하여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 농가의 생산성에 대한 조사는 MSY(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보다 FCR(사료요구율)에 중점을 두어야 함. 전체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MSY가 중요하겠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 요구율이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침.

- 현재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이 높으나, 가격이 하락하면 3%의 이자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됨.



<충청농장>

- 충청 부화장은 1988년 설립하여 주당 45,000수를 생산, 1993년 증축과 1996년 확장 이전을 통해 25만 수까지 생산량을 증대하였음.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계 설비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농장의 시설유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2012년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부화장이 포함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화장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수혜받았으며, 시설 리모델링과 증설 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충청 부화장(대표: 민균홍)
- 지원연도: 2012년
- 지원형태: 국고 30%, 지방비 10%, 용자 50%, 자부담 10%(총 14억 원)
- 지원내용: 부화장 리모델링 및 증설
- 만족도: ★★★★★☆

- 만족이유: 노후된 설비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방역 악취저감 시설로 노동 환경 개선

○ 사업 수혜 효과 및 우수사례

- (생산능력) 부화장의 생산 능력은 시설현대화 이후 주당 34만 5천 개가 입란 가능하며, 현재는 약 27만 수의 병아리를 생산
 - All in All out 시스템을 운영하여 병아리로 출고될 때까지 완벽한 방제 시스템(백신 접종 등)을 구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
 - 신규설비(부화기, 발육기, 공조시설 등) 증설에 따라 병아리 발생률이 약 2~3% 향상되었고, 약추(약한 병아리) 발생률도 기존 600~700수(13만 수 입란 기준)에서 현재 약 100수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
- (생산비 절감) 부화장 자체로 기존 사용하던 종이 박스를 P박스로 대체(세척 후 재사용)함으로써 위생 관리 측면이 개선되고 소모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노동환경개선) 부화장의 특성상 약추가 선별되는 경우 즉시 폐사를 시키기 때문에 농장 내에 폐사에 따른 악취가 심했지만, 악취 저감시설 설치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농장 내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된 효과가 나타남.

○ 건의사항

-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부화장을 자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급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일반(개인, 법인) 부화장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정부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계열화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 과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계열사가 아닌 일반 농가(종계, 부화, 사육 포함)가 수급의 완충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계열화가 90% 이상 진행되면서 완충 작용을 못하고 있으며 10% 미만의 일반 농가는 큰 계열업체 사이에서 피해

-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규모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문제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



<지현목장>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위치한 지현목장은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와 조사료생산기반사업수혜를 받은 목장으로서 1993년 젖소 9마리를 입식한 이후 현재는 총 22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그 중 착유 젖소는 89두임.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지현목장(대표: 홍동석)
- 지원연도: 2011년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총액 5,000만 원, 금리 3%)
- 지원내용: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사일리지 제조비용
- 만족도: ★★★★★☆
- 만족이유: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설을 확대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보장하고 급이·급수 및 소독·환기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사육환경이 개선됨.

○ 사업 수혜 효과

- 지현목장은 2009년 제주지역 최초로 젓소 HACCP 인증을 획득
- 지현목장은 젓소 사육뿐만 아니라 체험목장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농촌창조경제의 핵심인 6차 산업화를 실천하여 부가적인 수익창출
- 마을 목장 20만 평을 임대해 경작하고 있으며 알팔파, 면실, 비트를 제외한 모든 조사료는 100% 자급자족하고 있고, 초지에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양돈장액비를 비료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목장 퇴비 역시 100% 초지에 환원
- (원유 생산성) 연평균 두당 착유량은 12~12.5톤으로 전국 평균(8~9톤)보다 높음
 -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을 통해 해발 600미터 30만 평의 조사료 포에서 순환식 자연농업으로 생산한 유기농 목초 등 양질의 사료를 젓소에게 제공
 - 인공수정 및 질병관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착유량과 배합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젓소를 보다 안락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

○ 기타 건의 사항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용자규모 확대
 - 소규모의 용자지원은 시설 확대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음
- 조사료생산기반 사업의 지원확대를 통해 조사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초지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주도와 같이 조사료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6차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6차 산업 성공모델을 발굴·홍보해야 함.
- 발전 잠재력이 있는 농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



②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브랜드 경영체들은 사업을 통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및 브랜드육 확보,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2014년부터 이차보전형태로 지원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개요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 ▪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회원농가 생산 지원 ▪ 브랜드 경영체 운영 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운영지원: 축산물 브랜드 추진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녹색 한우>

- 전남지역의 대표 한우 브랜드인 ‘녹색한우’는 전라남도의 서남부권인 장성, 나주, 화순, 무안, 신안, 해남, 진도, 강진, 영암 지역의 10개 시·군, 7개 축협이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 축산물 브랜드로 2008년 연합사업단으로 출발. 녹색한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전남서남부권의 대표 브랜드이며, ‘녹색’은 전라남도의 깨끗한 이미지와 청정을, ‘한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을 의미함.



- 2009~15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 2010~13년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평가회 최우수업체 수상
- 2010~11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입상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녹색한우사업단 김지경 본부장
- 지원연도: 2014년
-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총 14억 원)
- 지원내용: 판매장 시설 및 축산농가 유통비용, 기술교육 등 지원
- 만족도: ★★★★★☆
- 만족이유: 지원사업을 통한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즉석가공식품 개발 등 마케팅능력 배양에 도움이 됨.

○ 사업 수혜 효과 및 우수사례

- 연도별 참여농가 수는 2010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사육두수는 2010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수: 1,174호('10) → 1,160('14.10), 사육두수: 64,458두('10) → 70,426('14.10.)
- (1등급 출현율) 2014년 한우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4.9%로 2013년 전국 평균인 83.7%와 비슷한 수준
- (브랜드 출하실적) 사업단 출범 1년 후인 2009년 약 2,000두에서 현재 6,731두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브랜드 경영체 평균 출하실적의 약 2배 수준
 - 녹색한우 연도별 출하실적: 4,426('11) → 4,797('12) → 6,019('13)
 - 전국 브랜드 경영체 출하실적(평균): 2,517('11) → 3,176('12) → 3,293('13)
- (유통망 확장) 2012~13년부터 전국의 유통망 확장을 위해 한우프라자(식당/판매장)를 개장, 2014년부터는 학교급식을 본격적으로 취급, 최근에는 즉석가공식품 생산
 - 수도권과 전남지역에 전문 판매장 12개소, 판매 가맹점 19개소를 운영 중
- (사양 및 품질 기준) 녹색한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양관리와 품질기준을 통해 참여조합의 농가들의 출하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1B 이상의 한우만 녹색한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송아지의 경우 자가생산(브랜드농가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송아지는 반드시 경매시장을 통해 구입하고 혈통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사료급여는 녹색한우의 고급육, 번식우 급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품질화를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생후 6개월령 이내에 거세, 1등급 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 의무, 사육밀도 기준 준수, 항생제 등 투여 제한, 사양관리 일지 기록, 출하 체중 준수 등 품질기준을 거쳐야 브랜드 부착이 가능
 - 사양관리 매뉴얼이 현재는 정착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품질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건의사항

- 개방화시대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자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현재의 보조사업들도 점차 용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경쟁력 강화와 사업 실수요자를 위해 무이자 용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시장이 개방화될수록 보조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이록 한우>

- 강원도의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하이록한우’는 강원도 영서 북부권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축협이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축산물 브랜드로 ‘하이’는 강원도의 높고 깨끗한 고지대를, ‘록’은 신선하고 깨끗한 푸르름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깨끗한 강원도의 자연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생산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 201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최우수상, 강원축산경진대회 고급육 우수, 암소 최우수, 조합 최우수상
- 2013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135호 및 대한민국 스타팜 지정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하이록한우사업단 정의봉 단장
- 지원연도: 2014년
- 지원형태: 국고·지방비 60%, 자부담 40%(총 6억 원)
- 지원내용: 판매장 시설 및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 만족도: ★★★★★

- 만족이유: 정책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하이록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마케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사업 수혜 효과 및 우수사례

- (농가현황) 사업단이 발족된 2004년 농가 576호, 12,695두로 시작하여 2013년 기준 하이록한우 참여농가는 983호, 비육우 사육두수는 35,357마리
 - 연도별 농가수: 576호('04) → 648('06) → 917('10) → 983('13)
 - 연도별 사육두수: 12,695두('04) → 19,310('06) → 35,565('10) → 35,357('13)
- (1등급 출현율)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소속 농가들의 2013년 평균 1등급 출현율은 84.1%로 2013년 전국 평균인 83.7%와 비슷한 수준
 - 하이록한우 참여농가 1등급 출현율: 75%('10) → 83('12) → 84('13)
- (브랜드 출하실적) 2013년 브랜드 출하실적은 총 4,966두로 전국 한우브랜드경영체의 평균인 3,293두보다 50% 많음.
 - 연도별 출하실적: 510두('05) → 1,434('06) → 2,261('08) → 3,132('10) → 4,966('13)
- (유통망 확장) 직영위탁 판매장은 14개(2005년 대비 6개소 증설)이며, 이외 농협 안심 한우, 농협 유통(양재, 성내점 등), 전문식당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2014년 12월에는 춘천 하나로클럽 퇴계점에 160석 규모의 셀프 한우식당과 80석 규모의 전문한우식당인 하이록한우 타운을 건립하여, 축산농가의 발전과 함께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위생·안전성 관리 향상) 하이록한우사업단은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 HACCP 기준원과 MOU를 체결하고 전단계 HACCP 공급체계를 완성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완벽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해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인증 농산물 홍보와 도·농 소통의 모범으로 선정되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스타팜’으로 지정됨.



③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등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
- 사업대상은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로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농업법인) 대상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사업명		개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말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공동이용설비
	지원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품목) 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등이농원>

- 등이농원을 경영하고 있는 박찬훈 대표는 2009년 후계농업인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장운영을 시작하였고, 복숭아와 사과를 재배하고 있음.



- 등이농장의 영농규모는 복숭아 7,000평, 사과 2,500평
- 최근 사과는 판매가 부진하여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복숭아 농원으로 전환할 계획
- 생산량의 80%는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그 외는 직거래 형태로 유통
- 젊은 농업인으로서 복숭아 최고경영자과정과 농협주체 강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동해·병충해 등에 대응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등이농원(대표: 박찬훈)
- 지원연도: 2012년, 2013년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총액 900만 원)
- 지원내용: 관수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설치
- 만족도: ★★★★★
- 만족이유: 관수 및 관정시설로 액비를 주입하거나 가뭄시기에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시간 절감 및 환경이 개선됨.

○ 사업 수혜 효과

- (품질) 복숭아의 경우 당초 15내/4.5kg의 출하량 비중이 높았으나, 관수시설 설치 후 적절한 수분공급으로 과실의 크기가 증대하면서 14내/4.5kg의

비율이 출하량의 50%에서 70~80%로 증가, 시장에서도 품질향상 효과로 4.5kg 박스당 1만 원의 가격 상승효과를 경험

- (재해피해 감소) 태풍은 과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나무 자체의 저장양분을 빈약하게 만들어 천공병 등을 유발하며 특히 바람에 의한 낙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방풍망 설치로 인해 피해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종전보다 높아짐.
- (노동시간) 기존의 소공을 관정 작업을 통해 중형급 관정으로 교체한 후 2배 이상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관수시설 설치로 가뭄시기에 과수 비대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생물 및 BM 활성수를 주입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간 절감.
- (환경) 방풍망 설치로 옆 축사의 분진 잔재물의 유입량이 줄어들어 환경미관이 개선되었지만, 분진으로 인한 병충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기타 건의 사항

- FTA 기금사업의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었으면 함. 매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FTA 사업의 시설보조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측의 이윤이 줄어들어 시설 관련 업체에서도 FTA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시설 설치비용 이외에도 동해방지피복제와 같이 고가농자재에 대한 지원 필요



<푸른농원>

- 푸른농원은 1975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해온 40년 경력의 베테랑 농업경영체로, 현재 탑프루트2에 참여하는 259호(총면적: 292ha) 복숭아 농원 중 하나임.



- 푸른농원의 영농규모는 4,500평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장 내 병충해 파라미터 설치 후 측정·경보·대응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체 생산량의 70%는 직거래를 통해 유통, 그 외는 도매시장으로 출하
 - 세종시에서 인증하는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인 백년해로(구. 행복한 아침)와 탑프루트 브랜드로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푸른농원(대표: 안경용)
 - 지원연도: 2012년, 2014년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지원총액: 1,100만 원)
 - 지원내용: Y자형 팔메트3, 관정개발
 - 만족도: ★★★★★
 - 만족이유: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관정개발로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Y자형은 나무

-
- 2 탑프루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과실의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과수원 토양관리, 수형개선, 결실관리 등 시기별 핵심요인 교육 및 월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3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일본을 거쳐 2008년 국내 재배에 접목한 수형으로, 이 재배방법은 저목(低木)으로 나무가 자라도록 유도하여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하고, 과실과 나무의 관리가 용이하여 고품질 복숭아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가 낮아 작업이 쉽고 노동시간이 절감되는 등 작업환경이 개선됨.

○ 사업 수혜 효과

- (생산량) Y자형 팔메트 설치로 최적재식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밀식재배가 가능하며, 조기 수확이 일반 개심자연형보다 3~4배 높기 때문에, 생산량은 이전보다 30~40% 증가
- (품질) Y자형 팔메트 수형으로 과실과 잎에 투광효과가 높고 광합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 과실을 균일하게 키울 수 있으며, 과원 평탄화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관리가 용이하여 전체적인 과수의 품질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노동환경) 과수를 낮게 키우기 때문에 작업하기 쉽고 균등한 농약살포가 가능
- (시설비용) Y자형 팔메트 수형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부담이 크지만, FTA 기금사업을 통해 고가의 시설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

○ 기타 건의 사항

- FTA 기금사업에서 명시한 기준 시설비용이 높아 자부담 비용도 함께 상승함. 또한, 정부에서는 1년에 한 가지 시설만 신청 및 선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봄.
- 지원신청 자격을 보면, 나무수령이 5년 이상인 것만 지원이 가능한데, 나무수령이 2년차였을 때부터 시설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자격요건과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의 일괄적인 지원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유연한 지원체계 및 기준설정이 요구됨.

④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집단화·규모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농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함.
 - 하드웨어 지원: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장비 등
 - 소프트웨어 지원: 친환경농업교육, 홍보프로그램, 브랜드 개발, 제품·기술 개발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개요>

사업명		개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목적	▪ 광역·마을 단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장비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후보단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 지역농협,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조직과 마을단위의 농업인 등

<청소영농조합법인>

-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청소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부터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 친환경 단지 내 대부분의 농가들은 무농약재배 농법에서 유기재배농법으로 전환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음.

- 현재 청소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농가의 약 90%가 유기재배농법을 사용하여 친환경 쌀을 재배 생산



- 법인에 소속된 63농가(117ha) 중 19농가(약 32ha, 27%)는 보령시 진죽리 내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 34농가 또한 농약을 최소화한 관행 재배 농업을 시행하여 오서산 백풍미(白風米)라는 보령 농특산물을 재배 및 가공하여 판매 중임.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청소영농조합법인(대표: 이양표)
- 지원연도: 2010년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총액 5억 3,000만 원)
- 지원내용: 친환경 실천 지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참여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만 족 도: ★★★★★
- 만족이유: 친환경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조직화를 위해 연 6회 이상 친환경 농업교육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쌀 생산성이 향상되고 친환경 농법에 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됨.

○ 사업 수혜 효과

- (친환경 생산면적) 올해 청소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친환경 농가의 생산면적은 2013년 30ha에서 2014년 32ha로 약 2ha(약 6.5%) 정도 증가함.
- (생산량) 친환경 쌀 생산량은 0.1ha당 2013년 475kg에서 2014년 560kg으로 약 15% 증가함.
- 올해 충청지역의 논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약 2.8% 줄었으며 단위면적(10ha)당 생산량이 약 3.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 영농조합법인의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사업의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청소영농조합에 소속된 친환경 농가들이 무기농약재배 농법에서 유기재배 농법으로 전환한지 4년이 지나면서 농가들의 유기재배 기술이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고 토양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면서 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짐.

- 보령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벼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 영농조합법인의 이양표 대표는 친환경단지 및 그 외곽의 200m 거리 안에서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건의하여 친환경단지의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타 건의 사항

-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쌀이 관행재배로 생산될 쌀보다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더욱더 필요함.
- 또한,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친환경 재배 농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부흥친환경쌀작목회>

- 충청남도 서산시 위치한 부흥 친환경 쌀 작목회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친환경 생산시설과 유통장비 구축지원을 받았고 부흥 친환경 쌀 작목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산과 서울의 학교급식 및 직거래로 납품하고 있음.

- 현재 부흥 친환경 쌀 작목회는 총 33농가가 친환경 농업인증을 받았으며 약 30ha(무농약: 13ha, 전환기: 10ha, 유기재배: 7ha)의 재배지에서 쌀과 함께 콩, 감자, 그리고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음.
- 부흥 친환경 쌀 작목회는 윤작을 실시하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유기콩은 부녀회에서 유기된장을 생산하여 현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을 예정임.

○ 일반 현황

- 소속기관: 부흥 친환경쌀 작목회(대표: 전양배)
- 지원연도: 2010년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총액 3억 2,400만 원)
- 지원내용: 친환경 지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친환경 자재관리 창고, 벼 보관창고, 건조시설), 참여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만 족 도: ★★★★★
- 만족이유: 친환경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월 1회 이상의 친환경 농업교육을 통해 작목회 참여농가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현재, 우수 유기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친환경 재배농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유기재배농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사업 수혜 효과

- (친환경 생산면적) 올해 부흥 친환경쌀 작목회에 소속된 친환경 농가의 생산면적은 2013년 20ha에서 2014년 30ha로 약 10ha(약 66%) 정도 증가함.
 - 부흥 친환경쌀 작목회의 친환경재배면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최소 월 1회 이상 친환경 농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결과임.
- (생산량) 친환경 쌀 생산량은 0.1ha당 2013년 475kg에서 2014년 480kg으로 약 1% 증가함.

- 작목회 대표(전양배)는 8년 이상 유기재배농업을 한 경험이 있어 작목회의 소속 회원들에게 유기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것이 생산량 증가의 효과로 나타남.
- (생산비절감) 부흥친환경쌀 작목회는 생산시설과 유통장비 구축을 통해 농작업 기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우렁이를 자체 양식해서 사용함.

○ 기타 건의 사항

- 100%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연구자료 D391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한 현장소통 결과보고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736-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